



지금은 자원절약과 재활용 시대 공공기관 의무구매법 시행, GR인증 잘 펼친다

산업자원부 제공

- 금년부터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을 의무구매하도록 법제화되면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金東哲)은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마크)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여 많은 업체가 GR인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그간, 재활용제품은 품질이 나쁘고 안전위생상 문제가 있다는 선입견이 강했으나,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155품목의 우수재활용제품 품질규격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조달규격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제는 소비자가 재활용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

- 특히, 이번 확대 대상품목 중에는 최근 북한의 연간 식량소비량보다도 많은 양이 배출된다고 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던 음식물쓰레기의 유효자원화를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사료를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였다.
 - GR인증의 대상품목은 이번 음식물쓰레기 사료, 건설폐자재, 폐목재 방화문 등 환경문제 해결이 시급한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위주로 70품목을 확대 하여 총 225품목으로 늘어났다.
 - 그간 음식물쓰레기는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건설폐자재는 무단폐기에 따른 국토훼손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자원화될 수 있어 국내 환경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술표준원은 GR마크의 품질기준을 KS보다 높은 우량 수준으로 설정하고 현장실사와 시험평가를 거쳐 인증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GR마크를 받은 재활용제품은 품질이 좋은 우수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그간의 GR인증실적은 331건의 신청중 116업체 146개 제품에 인증 부여 (인증비율 44%)



□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GR인증제품은 소비자와 조달기관이 안심하고 구매해도 좋은 우수제품임을 널리 홍보하고, 각급 조달기관에 조달규정의 정비를 요청하는 등 재활용 인증제품이 우선구매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추진한 결과,

- 조달청의 조달규격과 우수제품 선정기준, 국방부(조달본부)의 일반 물품 적격심사기준, 건설교통부의 친환경적 자재 및 재료의 사용,

농협중앙회의 우선구매품목 선정기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대제품 선정기준 등에서 GR마크인증제품에 우대배점을 부여케 하도록 하였다.

□ 기술표준원은 이번 재활용제품 의무구매의 법제화를 계기로 조달청, 국방부 조달본부, 농협중앙회 등 각급 조달기관에서 GR인증제품의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어 금년 중 GR인증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매출액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도 재활용제품을 의무구매하지 않으면 예산배정에 불이익을 받는 등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GR인증제품 등 우수재활용제품 구매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활용제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분 야	품 목 명
폐지 (21품목)	두루마리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일반용), 크라프트지, 골판지용 골심지, 골판지용 라이너, 인쇄용지, 전자복사용지, 필기용지, 외부포장용 골판지, 백판지, 신문용지, 종이파렛트, 달걀받침판, 포장용 펄프받침판(경량), 지관원지, 사무용 파일(플랫), 병받침판(경량), 종이골프티, 크라프트 방습지, 제지슬러지를 이용한 황토보드, 재활용 크라프트지대